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 융합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The Future We Make Togethe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이소연(So-Yeon Lee)**

초 록

도서관, 기록관과 박물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당대의 인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보관하였다가 후대의 인류에게 전승한다는 공통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들 문화유산기관은 간행물과 기록물, 3차원 객체 등 상이한 컬렉션 수집의 전통을 기반으로 분화와 전문화를 거듭하며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집단면담을 통해 도서관, 기록관과 박물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디지털 큐레이션과 디지털 보존 등 원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책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ABSTRACT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share the common mission of collecting and providing access to cultural heritage for the use of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lthough the evolution of thes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have taken place separately, distinguishing publications, records and 3-dimensional ob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pervasive digital environment will not allow the distinction remain effective for long. The present study aims at explor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illuminating the necessities and possibilities of collaboration among them.

키워드: 문화유산기관, 디지털 융합,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보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digital convergence, digital curation,
digital preservation libraries, archives, museums

* 이 논문은 2012년 2월 21일 국회도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정보관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What we have in common: Collaboration among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s'(Lee 2012)를 발전시킨 것이다.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oyeon@duk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자: 2012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29(3), 235-256, 20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23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고대의 도서관은 기록관이기도 하였다. 그 장서가 주로 점토판이었던 파피루스였던, 신화나 전설 등의 문학작품 옆에 왕실의 문서나 재산목록 등 기록물이 있었던 것이다. 발굴된 점토판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유적을 도서관이나 기록관으로 추정했을 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모든 유형의 매체를 다 소장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기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Museion of Alexandria는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과 기록관의 조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Kirchhoff, Schweibenz, & Sieglerschmidt, 2008, p. 251). 대량 인쇄술이 발명되고, 근대국가가가 출현하고, 간행물과 기록물을 구분하게 되면서, 기관 정체성 뿐 아니라 관련 전문직의 교육, 그리고 역점을 두는 사회적 기능이 분화되었다. 그러나 무언가를 수집하여 구축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비영리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교육, 문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퇴색한 적은 없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행물이나 기록물, 3차원 객체의 디지털 대체물을 구분하려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관의 간행물과 기록관의 기록물,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한 문화객체 컬렉션의 차이점을 인식

하려 하지도, 인식한다 해도 수용하려 하지도 않는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문화유산기관이 맞이하게 될 디지털 융합이 최초로 예고된 것은 1998년 Boyd Rayward에 의해서였다. 그는 매체와 포맷의 차이에 근거한 조직의 철학, 기능과 기법이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방식에 의해 통합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재정비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유산 정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Rayward, 1998).

사실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었던 문화유산기관의 융합은 2004년에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통합되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국립기록관과 역사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렵부터 박재용과 조윤희(2004), 서혜란(2005) 등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이나 통합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00년 영국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도서관, 박물관과 기록관의 서비스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기구인 MLA Council이 설립되었고, 미국에서도 IMLS(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와 RLG(Research Libraries Group)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화유산기관의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문직 회의를 열고 관련 출판물을 간행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이래로 3년간 문헌정보학, 기록학, 박물관학 등 3개 연구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3종(Library Quarterly와 Archival Science, 그리고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에 디지털 융합 시대의 도래와 이를 대비한 문화유산정보전문직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Professional)

의 양성을 주제로 한 특집호가 각각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게재된 논문들은 협력과 조정을 통해 각각의 문화유산기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문화유산기관이 디지털 융합의 시대에도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관이라는 책임을 끌어안아야 함도 지적하고 있다.

문화유산기관이 공통으로 직면한 미래에 대한 이론적 전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과 조정의 실제사례들이 통합은커녕 협력이나 조정조차도 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과 글로 급속도로 진전되는 논의에 비해 현장의 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통합이나 협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발견된다. 이에 이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과 박물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집단면담을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를 위해 앞서 언급한 3개 분야 학술지 특집호 기사들을 포함하여 문화유산기

관 협력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과 기록학의 차이를 탐구한 논문(남궁황, 1999; 최정태, 2004; 서혜란, 2005 등)은 일부 발표된 바 있으나 3개 기관의 특성을 비교한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2장에서는 (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의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2) 인류가 생산한 지적, 문화적 산물을 수집하여 이용을 제공하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한다는 원래의 사명을 디지털 융합의 시대에 맞추어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였다.

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논문은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편(박재용, 조윤희, 2004; 서혜란, 2005; 설문원, 2008; 조윤희, 2008; Yarrow, Clubb, & Draper, 2008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협력사례를 간략히 소개한 3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기 보다는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문헌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 협력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공통의 이해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리한 4장은 아래의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미술관의 3개 분야 전문가와의 집단면담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협력 사례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표 1> 집단면담 일정

분야	일자	참석자*
도서관	2012. 1. 6.	문헌정보학자 7인
기록관	2012. 1. 14.	기록학자 4인
박물관/미술관	2012. 1. 18.	미술사학자 2인

* 문헌정보학자이자 기록학자인 이 논문의 필자는 도서관과 기록관 분야 면담의 참석자 수에는 포함시켰으나,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참석자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오래 된 약속

2.1 문화유산기관의 기원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이라는 용어는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 등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당대의 인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보관하였다가 후대의 인류에게 전승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을 지칭한다. '서양에서 문화유산기관은 과거의 보관자(custodians of the past)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권위로 존재'(Cameron & Kenderdine, 2007, p. 1)해 왔다. '문화'에는 인류의 지적, 창조적 활동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유산'에는 이전 세대에서 현대로 전승된 것이나, 현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할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s)를 가진 문화 산물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처음 인류사회에 등장한 이유는 곧 인류의 문화유산, 또는 언젠가 유산이 될 현재의 자산을 수집하여 현재와 미래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문화유산기관과 사회가 맺은 오래 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화유산기관은 지적, 창조적 활동의 산물로서 지속적 가치를 가진 하나하나의 객체를 수집함으로써 컬렉션 안에 과거를 담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수집기관(collecting institution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문화유산기관으로는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 등을 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등 다음 세대로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는 기관으로까지 그 범

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도서관, 박물관과 기록관이 공유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집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사물을 모아 왔다. Hedstrom과 King(2003)은 글로 쓰인 텍스트를 모으고, 보존하고, 공유할 조직이 부재했을 때가 바로 '암흑시대'였다고 지적하여 문화유산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문화유산기관은 특히 17세기 이후로 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식물 표본 컬렉션으로부터 시작된 신흥 중산층 출신 학자들 사이의 수집 취미가 '경이로운 책장(Wonder Cabinet)'이라고 지칭되는 수집품 컬렉션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고, 특권 엘리트와 학자들에게만 이 책장을 공개했던 개인 수집가들이 이를 대학이나 주요 도시,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막 새로 시작한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이를 기증하면서 근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컬렉션과 컬렉션에 근거한 추론의 기록(corollary documentation)이 귀납적이고 실증적이며 체계적인 학문 탐구 전통의 근간이 되었다. Hedstrom과 King에 따르면 근대 문화유산기관의 황금기는 19세기에 찾아왔는데, 이 시기에 현재 잘 알려진 대부분의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이 세워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대중의 문맹탈출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Given과 McTavish(2010, p. 8)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엘리트 후원자들은 물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 기관을 함께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하곤 했는데, 이들 기관이 도시들에 문화의 분명한 신호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하층' 계급을 고양시키고 교육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고 믿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엘리트 후원자들은 사물을 실제로 보는 것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글로 읽는 것이 학습과정을 서로 보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물관을 보완할 수 있는 도서관과 도서관을 보완할 수 있는 박물관을 세웠다. 1900년대 초반에 시카고 자연사학회의 지리학 큐레이터였던 Farrington은 '박물관은 도서관이 설명하는 객체를 보여 준다; 도서관은 말로 객체를 설명하고, 박물관은 (객체를) 전시한다'(p. 80)는 말로 양자 간의 보완적 성격을 정의했다. 소규모 기관에서는 사서가 곧 큐레이터였고, 큐레이터가 곧 사서인 경향이 있었다(Given & McTavish, 2010, p. 16).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각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던 컬렉션과 기관 정체성의 경계가 뚜렷하게 세분되기 시작하였다(IMLS, 2008, p. 2).

산업시대 동안 사서와 아키비스트, 박물관 전문가(museologists)와 학자들은 간행물을 필사본으로부터 구분하고, 3차원 객체를 문서로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물리적 형태와 지적 형태를 세분하였다. 이러한 형식과 장르에 따라 상이한 양식의 문화재(cultural artifacts)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를 정하였다. 미술작품은 미술관에, 3차원 객체는 박물관에, 도서는 도서관에, 미간행 원본 문서는 기록관에 보관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 박물관과 기록관은 다시 국가, 언어와 지역, 또는 주제영역이나 학문, 대상 이용자집단에 따라 세분되었다. 영역이 특화되면서, 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한 곳에 조직화한다는 이상으로부터 멀어져, 특정한 이용자 집단이나 공

동체의 특성에 맞춘 분류체계와 분류법이 만들어졌다(Hedstrom & King, 2003, p. 21).

그리고 이러한 분화는 전문직 양성과정의 분화로 이어졌다.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2008년 워크숍 보고서는 전문직 협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 분야의 전문직 양성과정의 역사를 간략히 보고하고 있다. 가장 응집력 있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은 사서양성과정이며,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사서 양성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표준화되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박물관 전문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서 양성과정은 표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카네기 재단이 당시 상황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될 수 있었다. 카네기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고, ALA가 행동을 취해 ALA가 인증하는 대학원 과정이 공식적으로 표준화되는 제도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1936년에 설립된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표준화된 양성제도를 수립했던 ALA와는 달리 역사학과 언어학 대학원에서 기록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록관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료의 출처(respect des fonds)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컬렉션을 조직하는 기능적 내용은 직무교육(OJT)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SAA는 기록학 프로그램의 설립을 장려했지만 인증하지는 않았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등 몇 곳에 기록

학 교육과정의 설립을 장려하였고, 1994년에는 기록학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물관의 경우는 석사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진입경로가 있고, 미술사, 역사와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 졸업자에게도 진입 기회가 부여된다. 1895년 스미소니안의 G. B. Goode는 인문학 배경에 박물관 훈련을 결합하는 양성방식을 제안하였고, 20세기 초반에 다수의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인력이 부족해지자 박물관학 공식교육과정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교육 프로그램은 Pennsylvania Museum, State University of Iowa, Wellesley College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때부터 각 기관마다 박물관 업무의 특정 영역에 특화된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미술관 큐레이터 양성은 Pennsylvania Museum, 자연사는 State University of Iowa, 박물관과 도서관 방법론은 Wellesley College라는 식이다. 1906년에 설립된 미국박물관협회(AAM: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도 박물관 인력 양성과정에

서 일정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

2.2 전문화와 세분화

교육과정의 분리는 곧 전문직 양성을 위한 기반학문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박물관학의 기반 학문은 학문 자체도 아직 분산되어 아직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응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헌정보학과 기록학의 기반 학문은 분리된 상태로 각각 응집되었고, 이는 다시 각 기관에서 실무에서 컬렉션을 처리하는 방식의 분화와 전문화를 가속화시켰다. 다음의 <표 2>는 도서관, 기록관과 박물관 분야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널리 공표될 목적으로 대량생산된 간행물의 수집에 초점을 두는 도서관은 문헌정보학이나 사서직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관중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보제공이나 교육, 그리고 문화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한다. 특정 도서관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조직정체성은 그 도서관이 어떤

<표 2> 문화유산기관 비교표

분야	기반학문	전문직	컬렉션	주요기능	조직정체성 결정 요인
도서관	문헌정보학	사서	간행물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서비스	이용자/모기관 기반
기록관	기록학	records manager archivist 기록관리전문요원	기록물	업무지원 증거 역사연구	생산조직기반 주체기반
박물관/미술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민속학 박물관학 등	학예연구사 큐레이터 박물관 전문가	문화객체	전시 교육 연구	주체기반

모기관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대학,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모기관의 특성이 그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유형과 요구를 결정한다.

우리말로 기록관이라는 용어에는 기록생산 조직에 부설된 기록관(records center)과 기록관으로부터 기록을 이관 받는 보존기록관(archives)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구분은 기록생애주기에 따른 것인데, 기록생산기관에서 애초에 기록을 생산한 목적(업무상 활용이나 증빙 등)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동안의 관리단계와, 생산기관에서의 효용이 끝난 후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생산기관 단계에서의 기록을 records라고 부르다가, 미리 책정한 보존기한에 따라 보존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나면 archives로 부른다. 한편 보존기록관에는 국가 기록원처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기록관으로부터 기록을 이관 받는 보존기록관도 있지만, 민주화운동 사료관처럼 특정 주제 영역의 기록을 수집하는 수집형 기록관도 있다. 전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기록생산조직이 어디냐에 따라 기관 정체성이 결정되는 데 비해, 후자는 수집대상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차이를 갖는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보존기록관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무와 기록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생산단계보다는 보존단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과 기록관리실무가 발전해 왔다.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주로 생산조직 내 총무과의 행정인력이 생산단계에서의 기록관리를

담당해 오다가, 시스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기록을 생산하게 되면서 전산 인력이 records manager가 되는 경향도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 실무를 수립하는 과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양성된 인력이 생산단계와 보존단계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독특한 양성제도를 수립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은 가장 응집력이 약한 분야이다. 미국에서는 미술사, 역사와 인류학 등의 전공자가 박물관 전문직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 학문이 되는 경향이며, 박물관학(museology)¹⁾ 교육과정도 생겨나고 있다(IMLS, 2008, p. 3). 우리나라에서도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이나 민속학이 진입 경로가 되며(박물관/미술관 집단면담), 최근 들어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에 박물관학이나 예술경영, 예술행정 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있다(박재용, 조윤희, 2004, p. 322). Hedstrom과 King(2003)은 큐레이터가 아니라 박물관 전문가(museologist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박물관 인력을 지칭하고 있다.

간행물이나 기록물에 대한 용어나 정의가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데 반해 박물관 컬렉션을 구성하는 소장물에 대한 명칭은 다소 혼란스러운 편이다. 영어든 우리말이든 관련 문헌에서는 박물관 객체(museum objects), 문화 객체(cultural objects),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cultural artifacts), 문화작품이나 예술작품(cultural/art works)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집단면담에서, '박물관'이라는

1) 박물관학(museology)은 '박물관 소장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내용을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The Free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www.thefreedictionary.com/museologist>).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본식 표현인 '재(財)'를 피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찾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비해 박물관이 가장 뚜렷한 각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컬렉션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할 만하다. 박물관 컬렉션의 범위는 그만큼 다양하며, 어떤 박물관을 다른 박물관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박물관 정체성은 컬렉션의 주제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세 기관이 소장하는 컬렉션의 성격은 컬렉션을 구성하는 개별 자료의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도서관은 대량생산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간행물을 수집하며, 기록관 컬렉션의 대부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맥락에 따른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아이টে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은 어떤 유형에서든 가장 희귀한 사물을 골라 수집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세 기관의 철학과 정책은 이러한 컬렉션의 차이를 반영한다. 박물관은 희귀한 것을 전시하고, 기록관에서는 아키비스트의 통제 하에 고유한 기록 아이টে을 열람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사본을 대출한다(Trant, 2009, p. 371). 박물관 소장품의 희귀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박물관 분야 집단면담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50년은 지나야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비교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세 기관 모두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각 기능의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집 기능은 세 기관 모두 구입과 기증의 경로를 통해 컬렉션을 수집한다. 법규에 따라 기록을 이관 받는 보존기록관에서는 이관(accession)이 주요 수집 경로가 되지만, 일부 컬렉션은 구입이나 기증을 통해 입수하기도 하며, 수집형 기록관이라면 특히 더 구입과 기증에 의존하게 된다. 도서관의 경우, 구입이나 기증이 아니라 교환이나 납본 방식을 통해 입수하는 컬렉션의 비중이 높은 도서관도 있다.

도서관과 달리 기록관과 박물관이 동질성을 갖는 기능은 평가선별 기능이라고 하겠다. 도서관에서는 제한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표 3> 문화유산기관 기능 비교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수집	구입 기증 교환	이관 구입 기증	구입 기증
평가선별	장서선정	가치평가(보존기간 책정)	가치평가(진위감정)
정리기술/검색지원	도서분류체계 서지 기술	기록분류체계 기록물 기술	등록대장/야장(野帳)
열람과 이용	개가제 대출	대체로 폐가제 관내열람 전시 출판	수장공간과 전시공간 분리 전시 출판
전시와 출판	부가기능	주요 기능의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

selection 중심의 활동이다. 기록관에서의 평가는 기록이 가진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에 대한 평가 등 대부분의 아키비스트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록 관리 업무라고 간주하는 기능이다. 도서관에서의 평가선별은 선정(selection), 기록관에서의 평가는 보존기간 책정과 관련된 가치평가(appraisal)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같은 가치평가라고 해도 보존연한보다는 진위여부의 판정에 초점을 두는 감정(appraisal) 기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과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정리기술 방식도 세 기관 간 큰 차이점을 보이는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량생산된 간행물이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큼,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자료의 정리기술을 위한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기술 방식의 표준화 시도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학문분류에 기반한 도서분류표인 듀이십진분류표나 미의회도서관분류표 등 잘 알려진 분류체계의 표준화, 그리고 기술규칙이나 MARC 입력형식 등의 표준화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고유한 컬렉션을 갖고 있는 기록관에서는 생산기관의 기능과 업무분류에 기반하여 각 기관마다 고유한 기록분류체계를 생산하게 되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기획, 감사, 인사, 회계 등의 공통업무를 위한 기록분류체계를 표준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ISAD(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 등 기록물 기술표준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담은 등록대장은 작성하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

면담 중에 동일 주제에 대한 기록관과 박물관 소장 자료의 종합목록을 만들기 위해 목록 사본을 요청했더니 박물관 측에서 장당 만원의 복사비를 청구했다는 일화가 보고되었다. 이 이야기는 기록관 분야 면담자가 박물관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려준 것이었다. 또 다른 면담 참여자(기록관)도 박물관 문화가 워낙 자료나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폐쇄적이라며, 박물관끼리의 통합검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박물관 측 면담참여자에 따르면, 소장자료와 목록을 완전히 공개하는 박물관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한다. 전시를 통하지 않고 자료를 이용시키는 관행이 드문 탓이기도 하고, 기증 받은 자료의 30%가 진품이고, 70%가 위조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위판정이 안된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환수 등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소장품과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 문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한다.

박물관 분야 집단면담 중에 야장(野帳)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기술형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되는 서식으로 각 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B4 크기로 네 면에 걸쳐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실측 수치, 입수 경로, 추정 연대 등의 기본 속성과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해당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학예사들끼리는 공유하지만 여기 수록된 정보를 공개하는 대민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람과 이용도 세 기관 사이의 차이점이 극명한 기능영역이다. 도서관에서는 개가제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소장자료 활용을 허용한다. 이용자 중 전문연구자 비율이 높고 유일본이 대부분인 기록관에서는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폐가제 방식의 관내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소장자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시나 출판이 보편적이다.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출판을 위해서 전문연구자를 초빙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장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박물관의 경우, 전시 이외의 방식으로는 소장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박물관 전문직인 큐레이터는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작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박물관 분야 집단면담)'이라고 정의된다. 박물관 공간이나 조직구조 자체가 수장공간과 전시공간, 그리고 유물부(수집, 보존)와 미술부(전시기획)로 분리되어 있다. 기록관에서의 출판이 소장자료 해제 집이나 연구서 등을 위한 것인데 비해, 박물관에서의 출판은 전시를 위한 도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지원 기능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은 사서와 아키비스트, 큐레이터의 활동이 이용자의 이용이나 감상에 개입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사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는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교육자나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한다(Trant, 2009, p. 370).

기록생산기관의 일부인 기록관은 기록의 이용뿐 아니라 생산과정까지 개입하며,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보존기록관에서도 아키비스트가 어떤 소장기록이 더 연구되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어떤 소장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지, 그리고 전시물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소장물의 규모에 비해 턱 없이 협소한 전시공간을 갖고 있을 뿐이므로, 무엇을 전시할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화적 선언을 하는 것이 되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그 자체로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Hedstrom & King, 2003, pp. 10-11).

한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를 골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개인적 행동이다. 책을 골라, 집에서 혼자 읽기 위해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관 이용자는 가장 구체적인 문체와 이용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출생 신고나 선조의 이민 등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참조한다. 역사학자만이 기록 컬렉션을 폭넓게 브라우즈하며, 이 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 컬렉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박물관 전시 관람은 이에 비해 사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전시 관람 등 일반적인 교육과 여가를 추구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

2) 스미소니언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Smithsonian)은 1990년대 중반에 세계 제 2차대전 당시 일본 핵폭탄 투하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 전시는 미국 박물관의 전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승전 기념, 즉, 참전군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투하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Trant, 2009, p. 371).

리한 관찰은 각 기관이 특정한 유형의 이용자와 이용패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자가 선호하는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실무와 실무지원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Trant, 2009, p. 371).

3. 함께 만들어 갈 미래

3.1 오래 된 약속의 새로운 실천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기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당대의 인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보관하였다가 후대의 인류에게 전승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곧 문화유산기관이 인류사회에 등장하게 된 이유이자 문화유산기관이 인류사회와 맺은 약속을 의미한다. 공통의 약속에서 시작한 3개 기관이 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아날로그 지식과 문화전달매체가 간행물과 기록물, 그리고 3차원 객체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지식문화 생산조건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구분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더우기 문화유산기관의 미래라는 맥락에서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3개 기관의 분화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emsey도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이 융합될 미래를 조망하였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기억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유럽의 문화와 지적 기록을 조직화한다. 그 컬렉션은 인류, 공동체, 기관과 개인, 그리고 학술과 문화 유산, 우리의 상상력과 솜씨, 학습의 시간을 관통하는 산물의 기억을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우리를 앞선 세대와 연결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우리의 유산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 학자, 시민, 그리고 기업인과 관광객, 학생이 이들을 이용한다. 이들은 다시 미래를 위한 유산을 생산하기도 한다. 기억기관은 학습, 통상, 관광과 개인의 성취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번영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한다(Demsey, 1999).

설문원(2008)은 이렇듯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역할을 공유한 문화유산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할 이유로 우선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대상 자원의 형식과 매체가 유사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디지털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경험과 지식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찾았다. 또 이용자가 전통적 매체 구분 방식을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나 수집과 보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디지털 자원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협력의 추동요인으로 보았다. Hedstrom과 King(2003)도 많은 사람들이 기관 간 차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차이가 분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3기관의 구분은 산업화와 전문화의 결과일 뿐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갈수록 더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간행물을 위한 도서관, 미간행 기록 보존소인 기록관과 3차원 객체 수장고로서의 박물관이라는 기관 정체성의 구분은 인공적인 것으로 지식

의 생산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인해 어쩌면 인류는 마침내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의도하였던 '모든 유형의 매체를 한 곳에 수집'한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과 기록관의 조상이기도 했던 Museion of Alexandria를 구현하기 위한 길에 3기관의 기능과 관할영역에 대한 인위적 구분이 장애가 되고 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21세기 초반 현재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산물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이 디지털 시대 문화유산기관의 주요한 기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Digital Curation Centre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현재와 미래 이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집합을 관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학술 자료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간단하게는 '전반적 디지털 객체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적극적 관리'라는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자산을 선별, 유지, 수집, 보존하여,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터인 Henry Lowood(2012)는, 디지털 큐레이터는 수집가이자 자원을 보살피는 사람(caregiver)이고, 맥락과 함께 자원을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기록화하며, 컬렉션의 빈칸을 찾아내는 일(crack detection)이 주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책무는 이렇게 수집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장기적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2006년에 캐나다의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뉴욕 공공도서관과 함께 디지털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여기 참여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주도적 실무자와 교육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첫째, 문화유산기관 말고는 아무도 디지털 문화유산의 장기보존 책임을 맡을 곳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중대한 공공 가치를 갖고 있지만 상업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원이 특히 위협에 처해 있다. 둘째, 디지털 보존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재창조(organizational transformation)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문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조직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원을 입수하기도 전에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 관리 정책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영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자원 범위를 넘는 해결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유산 전문직은 디지털 보존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예술가, 영화 제작자, 복원전문가, 수집가, 기술개발자와 교육자 등 다양한 생산자와 주요 파트너에게 전파할 사명을 갖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의 실무는 이미 포화 상태(state of flux)에 있어, 전문직 교육 커리큘럼과 계속교육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IMLS, 2006).

아마도 디지털 보존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의 전통

적 문화유산기관의 경계와 범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Zorich(2007)는 ‘협력은 MLA의 경계를 넘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 기술과 영리 부문 등의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포함한다는 뜻’도 내포한다고 지적하였다. ‘디지털 객체나 컬렉션은 별개로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객체나 컬렉션이 발견되는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UNESCO의 디지털 유산 보존 현장은 ‘디지털 자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발행자, 운영자, 배포자’와 함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유산기관,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 생산자, 출판사, 관련 산업’ 등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3.2 협력 동향과 장애요인

현재 다양한 층위에서,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음의 <표 4>는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협력의 사례를 층위와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층위는 국제/국가, 지역과 조직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협력유형은 조직통합, 정책/조정기구 설립, 통합검색과 접근, 전문직 협력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사례는 2004년에 캐나다의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조직을 통합한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이 될 것이다. 두 국립관의 조직통합과 함께 2004년에 발표된 LAC 법의 전문은 ‘현재와 미래 캐나다인을 위한 캐나다의 기록유산 보존의 법적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 간행물의 법적 납본과 캐나다인이 관심 갖는 웹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수집할 권한, 위협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가치 있는 정부 기록의 보존을 보장하는 의무 등 디지털 보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힘과 의무를 LAC에 부여하고 있다 (Bak & Armstrong, 2008, p. 279). 영국의 국립기록관인 TNA(The National Archives)도 이전의 정부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와 역사편찬위원회(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가 2003년에 통합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지역 단위의 조직통합 사례로는 캐나다 퀘벡 주의 주립도서관과 기록관(BANQ: Bibliotheque et Archives Nationale du Quebec)이나 미국의 Lafayette에서 도서관과 학습센터가 통합한 사례(LLLC: Lafayette Library and Learning Center)를 들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 자체의 통합은 아니지만 기관 간 경계를 아우르는 정책/조정기구를 수립한 사

<표 4> 협력의 층위와 내용

층위/내용	조직 통합	정책/조정기구	통합접근	전문직 협력
국제/국가	LAC TNA	IMLS MLA Council Collections Council	Europeana Picture Australia	CALM ALARM
지역	BANQ LLLC	-	NYARC	-
조직	-	Yale Federation of Collections	-	-

례들도 있다. 미국의 IMLS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 관한 수차례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MLA Council은 문화기관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구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나 2008년 공공재정 압박 때문에 폐지되고 축소된 기능은 Arts Council England로 병합되었다. 호주의 Collections Council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으나 2010년에 문을 닫았다. 한편에서는 국가 단위의 조정기구가 예산절감을 위해 문을 닫는 가운데, 조직 차원의 조정기구로 제안되고 있는 사례가 Yale Confederation of Collections이다. Yale 대학에서는 2007년 Research Libraries Group의 후원으로 대학 내 다양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대표하는 16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RLG는 물리적 공간, 재원 마련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로서의 조정기구인 Yale Confederation of Collections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Zorich, 2008, p. 2).

가장 보편적인 협력사례는 통합접근 서비스가 될 것이다. Europeana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시청각 자료 컬렉션 등 유럽 전역 33개국의 2,200여 문화유산기관이 소장한 도서,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2,300만종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Picture Australia는 호주의 다양한 문화유산기관이 소장한 이미지 자료에 대한 검색을 지원한다. 교사, 전시기획자가 제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한, 일종의 온라인 전시라고 할 수 있는 Picture Trails을

통해 이미지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지역 단위의 통합접근 제공 사례로는 NYARC(New York Art Resources Consortium)가 있다. 카네기 멜론재단이 후원하고, 미국 뉴욕 지역의 7개 아트센터, 공공도서관, 예술기록관이 참여(NYC-7 Collaboration)하여 구축한 통합검색 플랫폼이다.

전문직 간 협력의 사례도 특기할 만하다. 미국의 CALM(Committee on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은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AAM(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가 함께 구성한 연석위원회(Joint Committee)다. 1972년에 특별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1974년 상설 위원회가 되었다. 처음엔 SAA와 ALA만 함께 하다가 2003년부터 AAM이 합류하였다. 각 협회로부터 5인이 참여하여 15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2년마다 각 협회에서 공동위원장을 임명한다. 캐나다에는 ALARM(Alliance for Libraries, Archives, Records Management)이 있다. ARMA(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dministrators), CLA(Canadian Library Association), CCA(Canadian Council of Archives), 캐나다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다. 정보자원 부문 5만여 노동자가 수행하는 기능이 같고, 공통의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정보기술 분야 인력과의 힘든 경쟁이나 인력 감축 문제에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 등이 협력의 배경이 되었다(서혜란, 2005, p. 36).

문헌으로 보고된 협력사례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도 드물지 않다. 문헌정보학, 기록학, 박물관학 등 3개 연구

분야의 학술지 특집호를 편집했던 Paul Marty (2008, p. 259)는 3개 특집호를 편집하면서 협력 필요성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장애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슬회하였다. 이 특집호 논문 중 하나는 크로아티아의 문화유산기관의 실무자와 정책담당 공무원 7인과의 면담연구였는데, 저자인 Tanakovic과 Badurina(2009)는 기관 간 일종의 경쟁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RLG가 Edinburgh, Princeton, Yale, Smithsonian Institution과 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5차에 걸쳐 차례로 개최한 워크숍에서도 부서와 개인의 과욕, 분리된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 등이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역시 부서나 캠퍼스 간 경쟁관계가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금 마련에서 성과평가까지 다양한 인센티브 기제들이 사실상 부서 간 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Waibel & Erway, 2009, p. 327). 특히 Yale대에서 열린 RLG 워크숍에서는 협력의 장애가 되는 행정구조의 몇 가지 측면이 발견되었다. 기증자/기금제공자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특정 학과, 프로그램, 컬렉션이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직의 관료적 계층구조로 인해 결재라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대학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관장하는 위원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각 위원회의 어젠다가 중복되기 쉬운 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Zorich, 2008, p. 2).

서혜란(2005, p. 28)은 조직문화의 차이를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도서관은 상호대차 등 정보공유의 전통이 강하고 정보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강조하는 반면 기록관

은 유일본이고 특정 생산기관 지향적인 기록물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공유보다는 독자적인 정보자료의 축적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사서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또 전문용어의 불일치도 조직문화 차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기관 협력

4.1 협력사례

이 연구에서는 세 분야 관련자와의 집단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 사례의 확인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협력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우선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일제시대 관보 검색 정보를 공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관보를 소장하여 디지털화한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지만 역사학자들이 주요 이용자였으므로, 국가기록원 과거사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DB사업 예산으로 색인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검색하고 원문은 링크를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로 가서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색인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나 국가기록원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고 주요 이용자집단인 역사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역사기록관과 부산시민

도서관의 협력 사례이다. 두 기관은 2008년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기록으로 함께 하는 역사 교실' 등의 시민강좌와 학부모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공동운영하였다. 양 기관 소장 대표 고문헌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제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설문원, 2008, p. 15).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해외 소재 한국자료 수집을 위한 협의체 사례일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0년대 중반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해외에서 한국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진행 중인 사업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쟁적 중복 수집을 피할 수 없었다. 집단면담 참여자 중 한 사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편(국사편찬위원회)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마다 직원을 1년 가까이 외국에 파견을 보내요, 거기서 뭐 독일서도 복사해 오고, 미국서도 복사해 오고, 막 복사해 와요. 국편에서는 국중(국립중앙도서관)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난감해 했다고 하죠. 국편은 집중적이고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자부하는데, 국중은 국중대로 또 가요. 웃었던 게 뭐냐면, 조봉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색인 딱 치니까 조봉암이라는 단어가 100페이지 되는 문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국중도 해요. 해서 막 성과물도 내고 해요.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에서도 전 세계에 사람을 보내죠. 근데 서로를 붙여놓으면 싸움 요소가 충분하지만,

서로들 안 부딪치려고 하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한 다든지,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일정하게 조정력을 행사하는 협의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쪽 기관에서 가져 온 걸 저 쪽 기관에서 또 갖고 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도서관 사이트, 국편 사이트,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 규장각은 고문서라 안하죠. ... 국회도 하죠, 국회도서관도 입법조사차원에서, 사료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서비스를 위한 수집인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집인 거죠.

해외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금확보나 사업범위와 관할영역에 관련된 경쟁이 꼭 필요한 협력이나 조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일 것이다. 서혜란(2005, p. 28)도 우리나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관 이기주의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역할분담에 쉽게 합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중복투자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에,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과학부에 속해 있는 등 정책결정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중복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각 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미성숙한 점과 국가대표기관이 독립적이지 못한 것도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부문 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력

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수준이 불균형한 것도 함께 지적되었다.

4.2 상호이해와 인식확산의 과제

이 연구에서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집단면담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기록관 관계자들이었다. 우리나라의 기록공동체는 설립 운영 중인 기록관이나, 전문직, 컬렉션의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의 유입을 환영하는 측면이 있다. 서구 기록학계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공유의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을 관찰해 온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기록관 분야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가는 후속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유와 협력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도서관 분야의 집단면담에서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서관법이 명시하는 도서관의 목적, 즉 정보, 교육, 문화 중 문화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정책적 관심이 아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 기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도서관 컬렉션을 유산이라는 범주로 정의하는 것이 전문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도서관의 또 다른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다. 박물관 분야 전문가들은 합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다면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기록관이나 도서관 등 다른 유형의 기관과의 협력은 커녕,

박물관 분야 내부의 협력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후속 연구에서 더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관 분야의 한 집단면담 참여자가 말하듯이, 협력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당위적으로라도 협력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식도 약한' 상태인 것이다.

디지털 자원의 수집과 보존, 전송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세 분야 간 차이가 있었다. 적어도 이 연구의 집단면담에 참여하였던 기록관 관련자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책무가 시급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분야의 집단면담에서는 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도서관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서가 감지되었다. 박물관 분야 집단면담에 참여한 2인의 전문가들은 전시기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디지털 매개물에 의존한 미술품 감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전시기법으로서의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면담참여자조차도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가상 현실 체험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형태의 유산이라는 개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박물관의 미래, 즉 20년 후의 박물관을 예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20년 후면 짧은 시간이니깐 그 사이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박물관 역할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시 기법만은 변할 것'이라는 응답만을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길고 큰 호흡에서 보면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 오고 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역사시대의 도래 이래 자임해 온 책무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협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력에는 단계가 있으며, 디지털 융합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수준의 융합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대화로 시작하여 공통점을 찾고 관계와 신뢰를 축적한 후리아만 작지만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와 필요에 따른 협력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협력을 상시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기본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에 뜻을 모으다보면 협력의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변모되어 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Waibel & Erway, 2009, p. 325).

일단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무수한 작은 걸음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협력으로부터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이 경험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분리되어 발전해 온 3개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현안과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탐구하여 이에 대한 지식을 확산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깝지만 먼 이웃,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발로 시도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시덕 (2012). 아카이브와 민속 아카이브, 민속박물관. 기록인, 18, 32-37.
- 김유승 (2012).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대한 연구: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 남궁황 (1999).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 117-136.
-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 설문원 (2009.5.7).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대학기록관협의회 정기세미나, 부산대학교.
- 조윤희 (2008).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5-21.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영국 MLA를 중심으로. 한국기

- 록관리학회지, 8(2), 61-74.
- 최정태 (2004). 도서관·정보학 그리고 기록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1-10.
- 황동열 (2012).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방안. 기록인, 18, 22-27.
- Back, G., & Armstrong, P. (2009). Points of convergence: Seamless long-term access to digital publications and archival records at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rchival Science*, 8(4), 279-293.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91-4>
- Brophy, P., & Butters, G. (2007). Creating a research agenda for local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cross Europe. *New Review of Information Networking*, 13(1), 4-21.
- Cameron, F., & Kenderdine, S. (Eds.) (2007). *Theorizing digital cultural heritage: A Critical discourse*. Boston: MIT Press.
- Conway, P. (2010). Preservation in the age of Google: Digitization, digital preservation, and dilemmas. *Library Quarterly*, 80(1), 61-79.
- Cox, R. J., & Larsen, R. (2008). iSchools and archival studies. *Archival Science*, 8, 307-326.
- Dempsey, L. (1999). Scientific, industrial, and cultural heritage: A shared approach. *Ariadne*, 22. Retrieved from <http://www.ariadne.ac.uk/issue22/dempsey>
- Emery, D., Toth, M. B., & Noel, W. (2009).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management for digital imaging in museum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337-356.
- Farrington, O. C. (2008). On the ideal relations of public libraries, museums, and art gallery to the city. (Originally published in the early 1900s) In H. H. Genoways and M. A. Andrei (Eds.), *Museum origins: Readings in early museum history and philosophy* (pp. 79-82). Walnut Creek, CA: Left Coast.
- France, F. G., Emery, D., & Toth, M. B. (2010).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data, and management in a library imaging program. *Library Quarterly*, 80(1), 33-59.
- Given, L. M., & McTavish, L. (2010). What's old is new again: The reconvergence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digital age. *Library Quarterly*, 80(1), 7-32.
- Hedstrom, M. (1991). Understanding electronic incunabula: A framework for research on electronic records. *The American Archivist*, 54, 334-354.
- Hedstrom, M., & King, J. L. (2003). On the LAM: Library, archive, and museum collections i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knowledge communities. Paris, Fr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dataoecd/59/63/32126054.pdf>
- Hunter, N. C., Legg, K., & Oehlerts, B. (2010). Two librarians, an archivist, and 13,000 images:

- Collaborating to build a digital collection. *Library Quarterly*, 80(1), 81-103.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8, April).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Professionals (CHIPs) workshop report at the Ringling Museum of Art, Sarasota, FL, Retrieved from http://www.imls.gov/assets/1/AssetManager/chips_workshop_report.pdf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7, Augus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Report of a meeting held at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chips.ci.fsu.edu/lis_trends.pdf
-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6, May). Canada-US dialogue on digital cultural heritage: Digital readiness and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Report of a meeting held at New York Public Library. Retrieved from http://chips.ci.fsu.edu/digital_readiness.pdf
- Kalfatovic, M. R., Kapsalis, E., Spiess, K. P., Camp, A. V., & Edson, M. (2008). Smithsonian team Flickr: A library, archives, and museums collections collaboration in web 2.0 space. *Archival Science*, 8(4), 267-277.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89-y>
- Kirchhoff, T., Schweibenz, W., & Sieglerschmidt, J. (2008). Archives, libraries, museums and the spell of ubiquitous knowledge. *Archival Science*, 8(4), 251-266.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93-2>
- Marty, P. (2008). An 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information age. *Archival Science*, 8(4), 247-250.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94-1>
- Lee, S. (2012). What we have in common: Collaboration among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95-117.
- Lowood, H. (2012). Stanford Libraries curator Henry Lowood. Interview by Howard Rheingold.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svAkKGfacbo>
- Oliver, G., Kim, Y., & Ross, S. (2009). Documentary genre and digital recordkeeping: Red herring or a way forward? *Archival Science*, 8(4), 295-305.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90-5>
- Ray, J. (2008). Sharks, digital curation, and the education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357-368. <http://dx.doi.org/10.1007/s10502-009-9094-1>
- Rayward, B.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E. Higgs, (Ed.),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pp. 207-226). Oxford: Clarendon Press.

- Smith-Yoshimura, K., & Shein, C. (2011). Social metadata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Part 1: Site reviews.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research/publications/library/2012/2012-01r.html>
- Tanackovic, S. F., & Badurina, B. (2009). Collaboration of Croatia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Experiences from museum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299-321.
- Trant, J. (2009). Emerging convergence? Thoughts on museums, archives, libraries, and professional training.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369-387.
- Waibel, G. (2010). Collaboration contexts: Framing local, group and global solutions.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resources/research/publications/library/2010/2010-09.pdf>
- Waibel, G., & Erway, R. (2009). Think globally, act locally: Library, archive, and museum collaboration.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4(4), 323-335.
- Yarrow, A., Clubb, B., & Draper, J. -L.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The Hague, IFLA Headquarters, 2008.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files/public-libraries/publications/prof-report-108/108-en.pdf>
- Zorich, D. M., Waibel, G., & Erway, R. (2008). Beyond the silos of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Dublin, Ohio: OCLC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oclc.org/resources/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8/2008-05.pdf>
- Zorich, D. M. (2007). Defining stewardship in the digital age. *First Monday*, 12(7). Retrieved from <http://firstmonday.org/htbin/cgiwrap/bin/ojs/index.php/fm/article/view/1927/1809>
- Zorich, D. M. (2008). Library, archives and museum collaboration at Yale University: A meeting to further dialog and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hosted by RLG programs. Retrieved from <http://odai.yale.edu/node/393/>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Yoon-Hee (2008). Cooperative plans for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5-21.
- Choe, Jung-Tai (2004). The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2), 1-10.
- Choi, Jae-Hee (2008). A case study on the MLA as an example for the national-level cooperation

-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61-74.
- Hwang, Dong-Ryul (2012). Operational policies for culture and arts archives. *GirokIn*, 18, 22-27.
- Kim, Shi-Dug (2012). Archives and folklore archives, folklore museums. *GirokIn*, 18, 32-37.
-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 Namgoong, Hwang (1999).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asks carried out in the library and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0, 117-136.
- Park, Jae-Yong, & Cho, Yoon-Hee (2004). A study on model development of cooperation system for library &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315-333.
- Seol, Moon-Won (2009.5.7). Collaboration strategies for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f University Archives Record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Suh, Hye-Ran (2005). Collaboration between libraries and archive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25-41.